

# 광주·전남 '창업 컨트롤타워' 생긴다

### 중기부 청사 내년 동천동 이전...2020년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정부기관 창업지원 창구 일원화...자금·R&D·투자 총괄 지원

광주·전남지역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벤처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열악한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투자 인프라가 확대되고 창업지원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지역 내 창업생태계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29일 광주·전남지역의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신청사가 준공되면 현 청사를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가칭)'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현 중기부 광주전남청 청사는 오는 2019년 9월 광주 시 서구 동천동에 신청사가 문을 열고 이전을 완료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본관 4층(지하 1층)과 별관 3층 등 총 면적 3724㎡ 규모다.

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현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창업지원들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자 개인에게 맞는 지원정책과 정보를 기본보다 수월하게 제공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등 창업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벤처창업지원센터 구축으로 수도권에 비해 벤처창업 투자 인프라가 미흡해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창업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중기부 광주전남청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창업투자회사는 단

1곳이었다. 전국 125개에 비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여기에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29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2조3803억원의 1.2% 수준이다. 또 '엑셀러레이터' 1개(전국55개)와 '엔젤클럽' 8개(전국194개) 등 투자환경이 열악해 광주·전남지역 벤처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새롭게 구축되는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일관지원과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센터 내 중기부 광주전남청 벤처창업팀

이 상주해 벤처창업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등 벤처창업지원기관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투자기관과 이노비즈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관련단체를 입주시켜 벤처창업 투자인프라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창업기업은 단 한번 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벤처창업지원 정책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보육에서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 단계별로 총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창업지원기관과 투자자, 창업기업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지원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과 생존률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박일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 입주한 혁신센터가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옮겨지면 벤처창업지원 기관과 창업기업이 한 건물에 모여 있게 돼 창업 지원 활동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형 중기부 광주전남청장은 "광주·전남벤처창업지원센터가 창업지원입주기관과 창업기업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벤처창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선글라스 렌즈 더 화려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층 베디베로 매장에서 고객이 틸트렌즈 선글라스를 착용해보고 있다. 틸트렌즈 선글라스는 착용 후 렌즈 안쪽의 눈동자가 비춰 답답해보이지 않고 활동성이 좋아 여름철 여행 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7.25 (-21.71)	↓ 금리(국고채 3년)	2.19 (-0.02)
↓ 코스닥	870.08 (-9.61)	↑ 환율(USD)	1076.80 (+2.60)

## 日 도쿄·오사카 3만원에 갈 기회

### 에어서울, 내달 7일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일본 도쿄, 오사카를 3만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에어서울은 29일부터 일본과 다낭, 홍콩 등 국제선 항공권을 파격적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회원 가입이 필수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성수기를 피해 여유롭게 여행을 떠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8일 신규 취항한 다낭을 비롯해 홍콩, 코타키나발루 등 동남아 노선과 괌 노선,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동경과 오사카를 포함한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항공임금이 3만원에 판매되며

다낭은 8만원, 홍콩 4만5000원, 코타키나발루 7만5000원, 씨엠티 11만원, 괌 7만원에 판매된다.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면 편도 총 금액의 경우 ▲도쿄 6만8700원 ▲오사카·다카마쓰·시즈오카·나가사키·히로시마·요코하·도야마 6만8600원 ▲다낭 12만4000원 ▲홍콩 8만6900원 ▲코타키나발루 12만100원 ▲씨엠티 15만5100원 ▲괌 13만1500원부터 구입할 수 있다.

얼리버드 항공권은 오는 6월 7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등을 통해 선착순 한정 판매하며 탑승 기간은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새천년대교를 서남권 랜드마크로

### 익산국토청, 야간경관 조명 설치·신설도로 신설 등 추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새천년대교를 서남권 랜드마크로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2월 개통 예정인 새천년대교 조명방식(정적조명)을 리듬감 있는 '동적조명'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익산청은 지난 3월부터 신안군과 새천년대교 관광 명소 육성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설치 협의를 진행해왔다.

새천년대교는 연장이 7.22km인 국내

에서 4번째로 긴 교량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단일 교량에 현수교와 사장교를 함께 배치하는 형태다. 총사업비로 5689억원이 투입된다.

익산청은 또 지역 랜드마크로 관광 수요와 교통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새천년대교와 연결되는 신설도로를 내년 4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신안군 등은 인근에 다기능 수산위판장, 수산식품 거점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삼성전자, 7월부터 전 직원에 근로시간 자율권

### 선택 근로·재량근로제·탄력근로제 도입...타 기업 확산 관심

삼성전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동시에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29일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둔 대책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쉬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이른바 '플렉스타임(flex time)제'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한 달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경우 특정 주일에 40시간, 특정 날짜에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명시된 재량 근로제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된 직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장이나 외근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직원의 근무시간 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재량 근로제의 경우 특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

자는 추후에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두 제도는 우선 개발과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조 부문의 경우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은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삼성이 지난 2009년 '자율출퇴근제'에 이어 2012년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한 뒤 다른 많은 기업이 뒤따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근무시스템 도입이 체계 전반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세균 99% 제거" 공기청정기 허위 광고 철폐

### 공정위, 삼성 등 6개 업체 과징금...LG는 경고만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이 제한적 조건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를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능인 것처럼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면서 제한적 실험결과만을 내세워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바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 과징금(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LG전자는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ww.yonhapnews.co.kr

## 지난해 국내외 뉴스가 한권에... '연합연감 2018년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18년판'이 5월 2일 출간됐습니다.

2017년 한 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도표 등을 정리해 수록한 이 자료집은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명의 필진이 참여했습니다.

초점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을 다룬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 포함 지진으로 인한 수능 일주일 연기, 사드 배치와 중국 보복에 따른 한중 갈등과 봉합,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등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본문에는 분야별 뉴스를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체계적으로 편집하는 한편, 중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요약 정리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각국 현황에서는 국가별 지도와 면적·인구·언어 등 개요에 더해 최근 상황까지 담았습니다.

자료 편에선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역대 정부기관장, 문재인 정부 5년간 설계도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별도로 엮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별 지도와 함께 나열한 북한 시·도 지리와 김정일 신년사를 비롯한 주요 연설 및 발표문, 북한 10대 뉴스, 입지, 연표 및 북한 주요 인물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소개해 자료 가치를 높였습니다.

- 4×6배판, 총 1,416쪽, 양장본
- 가격 : 18만원





**연합뉴스**  
YONHAPNEWS AGENCY

구입 문의 서울(02)398-3593~4 경기(031)238-2222 경기북(031)569-7788 인천(032)441-2007 대전·충청(042)521-9705  
광주(062)264-5777 경남(055)26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55-3800